

2022년 제1회 교통정책자문회의 회의록

일 시	2022. 11. 29.(화) 10:00	장 소	중회의실
회의명칭	2022년 제1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		
참 석 자	위원장(구청장), 소관 국·과장, 외부자문위원 등 12명	배석자	교통정책팀장 외 직원 1명
자문내용	1. 수영강변대로 드라이브스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검토 2. 해운대제일교회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		
진행흐름	개회 ⇒ 참석자 소개 ⇒ 회의안건 설명 ⇒ 토의 및 자문 ⇒ 폐회		
주요내용(발언요지)			
발언자	발언내용		
1.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 교통영향평가			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그랜드호텔이 없어지고 관광호텔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다기능의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● 관광호텔 기능 유지가 필요(300객실 이상)● 전면부 출입구는 일부만 Set-back을 시켰는데 전면 Set-back 필요● 오피스텔 출입구 전면 Set-back을 통해 한차로 확보 필요● 현재 사업지 보도폭이 협소함. 공개공지 등을 이용해서 보도폭 추가 확보		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사업지 남측 Set-back을 반드시 해야 하며, 추가로 조금 더 Set-back을 해서 차로폭이 좁은 구간을 3.0m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선형을 부드럽게 조정● 사업부지 외에 폭스바겐 앞 가각부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● 사업지 북측 Set-back을 하되, 가각부를 부드럽게 정비● 장기안의 경우 사업지 남서측 교차로 가각부(사업부지 반대편 포함)를 보도채움을 통해 더 두껍게 정비● 장기안의 경우 일방통행에 따른 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사업지 외의 주변 교차로나 도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● 사업지 북측 Set-back 시 보행공간을 확보하면서 가능하다면 좌회전 대기차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●출입구는 분리했지만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간의 주차 구획을 구분		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운대는 수비사거리부터 미포까지 전반적으로 개발 중이므로 사업부지만이 아닌 해운대 전반적인 교통량 분석과 연계하여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. 그리고 교통량 산정기준과 방법이 궁금함 ● 특히 마린시티에서 동백섬, 미포오거리 전체의 교통계획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. 그 내용이 연계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 함. ●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은 정체가 많이 생기는 구간이며, 일대에 고층건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 그 이용 차량들에 대한 교통량도 반영되어야 하나 해당 내용들이 빠져있으며,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교통량 분석내용도 빠져있음. ● 해운대해변로 한 차로 Set-back은 당연한 것이며 진출입 동선체계를 봤을 때 최소한 전체구간 2~3개 차로 Set-back은 이루어져야 진출입 차량들에 대한 안전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며 뒤 이면도로 마찬가지로 ● 주차는 법정대비 120%로 확보되었지만 오피스텔과 생숙의 규모가 대형이기 때문에 세대당 2~3대 이상 된다고 봄. 따라서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할 수 있음. 생숙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주차수요가 많을수록 주차대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● 보여주신 교통량 영상은 평일 저녁시간대인데 실제 많이 정체가 발생하는 주말 낮 시간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. 첨두시간대 교통량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함 ● 해운대해변로 유턴구간 짧음 ● 보행자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빠져있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남서측 횡단보도는 겹치지 않게 뒤로 이설 및 교차로 가각정비. 사업지 인근 해운대해변로의 경우 가각이 라운딩처리가 안되어 있으니 라운딩처리 ● 폭스바겐 앞 교차로의 경우 이중 정지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교차로로 이설 ●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사업지 인근 전체적으로 보도가 너무 협소하므로 보도를 더 확대하고, 사업지 서측 보행공간이 없는 곳은 보행공간 확보 ● 해운대해변로221번길의 경우 도로폭이 넓으므로 중앙선 설치 필요 ● 해운대해변로 동백사거리 ~ 하버타운 구간의 경우 직진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가중됨. 향후 차로확장에 대해 구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람 ● 요트장삼거리에서 동백사거리까지 왕복6차로인데 좌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비효율적임과거 5년 전에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보도를 줄이고 좌회전 차로를 만드는 계획을 만든 적이 있음. 이걸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검토 필요 ● 동백로에서 동백로29번길로 좌회전 허용할 경우 해운대해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보임. 그러나 왕복4차로이므로 좌회전 전용차로가 필요한데 향후 차로 확장에 대해 검토 필요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그랜드호텔 부지의 경우 LCT와는 달리 해운대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함. 이 개발 사업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며,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.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함 ● 한 차로 Set-back의 경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2~3개차로 이상 필요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므로 공공기여 차원에서 앞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 • 폭스바겐 앞 교차로 좌회전은 차로 운영 차원에서 불필요해 보이니 경찰청에서 검토 바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고로 하버타운~그랜드호텔 부지까지 기존 보도 외에 호텔에서 화단 등으로 점유하고 있던 구유지를 찾아냈는데 앞서 말한 차로확장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본적으로 용도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고 봄 • 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도 필요함. 교통에 대한 말씀은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.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세대당 2대 이상의 수요가 유발된다고 보며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도 대형으로 2대 이상의 수요가 생김. 따라서 차량 주차대수 산정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. 법정대비 120%는 분명히 부족하고 수용하기는 어려움. 140%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운대구는 120% 이상을 제안해 왔는데 140%까지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수용이 가능할지 의문임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영향평가 시 주차대수 기준이 부산이 제일 약함(해운대구만 120% 요구, 나머지 110%). 울산시, 창원시, 김해 등은 130% 이상 확보 요청하고 있음. •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2대 이상의 수요가 생기므로 부족할 수 있음. 그러나 부산시 건축심의에서는 지하7층까지 허가한 사례가 거의 없음.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개 차로만 Set-back을 하게 되어도 결과적으로 건축계획 수정이 필요함.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업지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.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좋을지 아니면 통합심의를 받아야 좋을지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심의 시 교통은 일부만 보기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게 필요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리하자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게 필요

2. 해운대제일교회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운대제일교회 신도수는 약2,000명이며 첨두시(일요일 오전 11시~12시) 약 500명 정도가 교회에 오는 걸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신도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과연 맞을지 의문이며 걱정임 • 수영로 교회의 경우 주말마다 그 일대가 주차장이 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 시설로 인해 좌동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. 따라서 사업지 Set-back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완화차로가 설치가 필수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회의 경우 11시 예배에 가장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음. 그런데 보고서 분석시간이 12시~1시로 잡혀있음. 11시에 가장 집중이 되므로 이 시간대로 분석이 필요함 • 좌동로에서 진입하는 좌회전(유턴) 전용차로의 경우 길이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 • 사업지 앞 교차로의 형태도 잘못되었음. 교회 출입구가 이면도로 쪽으로 형성되니 교차로 정지선을 절반 정도 전진. 이 현시가 맞으면 좌측으로 들어오는 것만 남겨두고 교차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필요 • 교회의 특수성에 따라 신도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방법적인 대책도 이미 마련되었어야 함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좌회전(유턴) 전용차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신도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임. 그리고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몰릴 경우 이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운행이 될지 의문스러움. • 일정 이상 보행자와 차량이 몰린다면 일발통행도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음 • 또한 사업지 위쪽으로는 보행로가 없으니 이 구간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, 버스, 전기차 전용으로 운영하는 게 맞음 • Set-back을 할 경우 공개공지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입구를 2개 만드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음 • 피크시간은 10:30~11:30 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음 • 좌동로 측에 Set-back도 필요함(우회전 감속차로)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차로 Set-back은 반드시 필요 • 지하 1개층 더 늘려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한다면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보임 • 현재 기준으로 교회가 신축된다면 민원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없음 • 그리고 주변에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은 없으므로 불법주정차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음. 따라서 주차면수 추가 확보가 필요함 • 신도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면도로 측구를 조정한다면 사업지에서 2m정도만 Set-back을 해도 한 개 차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.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시적으로 신도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짐 • 건축물을 바꿀 수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확답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함